

## 2016 NAKS 백범일지 독후감대회 심사결과 및 심사평

- 심사위원 및 경과

김동식(인하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송민호(홍익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표정훈(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강사)

심사위원회는 내용 이해도, 의미 발견, 글 구성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1 차 후보작을 선정하였다. 1 차 후보작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는 창의성, 작품성, 감동과 교훈, 역사의식 등을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13 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 심사총평

(1) 학생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백범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려는 글들이 많았다. 심사위원회는 그러한 이해의 설득력과 타당성을 유심히 살폈다.

(2) 책 내용을 충실히 정리하는 글들도 많았는데, 심사위원회는 내용 정리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소신 있게 밝히는 글에 더 주목하였다.

(3) 문장 구사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용의 진정성과 역사의식에 평가의 주안점을 더 두었다.

- 수상작 심사평

백범상 수상작 '아름다운 한국인'(김희령, 디트로이트한국 9)은 김구 선생의 좋은 문화와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소망과 의사가 되려는 학생 자신의 꿈을 설득력 있게 연결 지었다. '돈과 지식의 힘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의사가 아니라, 남을 돕고 남들이 공감하여 따르고 싶어 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결의를 밝힌 대목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전체적인 구성과 표현력도 좋았고 생각의 성숙함이 돋보인 글이다.